

"아우님, 왜 오늘은 복지관 놀러 안 나오셨수. 어디 몸이 불편하신가?"  
"아이구 형님 죄송합니다. 허리도 추시고 다리도 뻣뻣해서 영 일아날 수가 없어 못 나왔어요."  
보라매 남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만난 아우를 걱정하는 형님 정정순 보살의 애정어린 안부 인사가 전화 선을 타고 홀로 지내는 노인에게 전해진다. 결코 젊음을 과시할 만한 나이가 아니고 맞아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전 당한 교통사고로 온전한 건강을 자랑할 수도 없는 68세의 정정순 보살. 정 보살은 오전 9시면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을 나와 이 구석 저 구석 청소하는 것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한다. 그리고는 기능회복실을 찾아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는 노인들의 손발을 주무르고 물리치료를 돕는다. 요새는 치매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해 식사 시중을 돕고, 어릴 적 추억들을 늘어놓으며 그들의 동무되기를 자처하고 나서고 있다.



얼핏봐서는 누구에게 부축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외모지만 정 보살은 '노인이 노인을 돕는' 풍경을 지어내는 아름다운 할머니다. "소문날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 늙은이 이 세상에 진 빛 어떻게 다 갖고 가누"라며 한사코 선행을 감추려고만 하는 정 보살의 진실됨은 감동마저 자아낸다.

정 보살은 몇해 전 교통사고로 한달여 동안 병원신세를 지야 했다. 자식이 있어도 마땅히 의지할 곳 없고 그 휴유증으로 몇해를 고생하며 쓸쓸한 향혼을 맞을 수 밖에 없었던 정 보살에게 새로운 제2의 인생이 찾아왔다.

9년 전 남부노인종합복지관 은빛봉사원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맺은 복지사들의 도움으로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도 어떻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마음 먹게 된 것이다. 하루 7~8시간을 꼬박 복지관을 찾는 노인들과 거동이 불편해 문밖 출입을 할 수 없는 이들을 살뜰하게 챙기며 살아가는 정 보살의 정성어린 마음가짐과 실천. 누구에게 자랑할 것도 없이 빛을 잃는 마음으로 행하는 정 보살로 인해 노인이 노인을 돕는 눈물겨운 인연의 주인공들은 언제나 즐겁다.

(명예기자=이경숙)

구독료납부 은행지모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 오페라...국악...그림전...영산재...연꽃제

## 산사 문화향기 '가득'

### 불국사·범어사·백양사·봉원사 등 IMF 경제시름 위안처 '독특'

오페라하우스가 아닌 녹음 짙은 산사에서 듣는 오페라 아리아는 어떤 맛일까. 풍경소리 그윽한 차마릴 문상고운 대웅전을 배경으로 추는 살풀이춤은...

산사가 문화향기의 중심이 되고 있다. IMF의 영향으로 문화전반의 침체가 장기화, 가속화되어 변변한 불교문화 향사가 드문 요즘. 산사에서 오페라 국악 영산재 그림전시 등이 진행되거나 개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산사에서 열리는 문화향기는 행사 자체도 이채롭지만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그윽한 불 보살님의 미소가 배가 돼 실업 등 경제난으로 잔뜩 움추러든 사람들의 마음을 잔잔히 다독여주고 있다.

음악회가 20일 부산 범어사. 7월 4일 대구 동화사. 7월 25일 대전 동화사 등 산사에서 연이어 열린다. 일본군위안부기념관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산중음악회는 사립 국악관현악단들이 '영산회상' '귀소' '산행' 등 우리 가락을 연주하고 살풀이와 사물놀이 등도 흥겹게 배틀어준다.

백양사 고불미술관은 동자승 그림으로 유명한 원성스님의 '동승전'을 이달말까지 갖는다. 산사의 일상생활을 동자승의 맑고 꾸밈없는 모습으로 표현한 50여점의 동승그림은 산사

의 전 과정이 시연된다. 서울의 몇 안되는 고찰 봉원사 대웅전 앞 너른 들에서 봉행되는 이번 영산재는 전통 방패소리와 춤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산 인취사와 성남 정토사도 8월 연꽃과 함께 하는 문화제를 개최한다. 국악과 찬불가, 시낭송, 사예, 다도 그리고 연등이 어우러지는 연꽃문화제는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연례행사로 정착되고 있다.

장일남씨의 대표작 오페라 '원효'는 9월 18일~21일 경주 불국사 야외 특설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대구시립오페라단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해 공연하는 오페라 '원효'에는 중견 성악가들이 대거 출연할 예정이다.

물 찾은 관광객들에게 해맑은 미소를 떠올리게 한다. 월정사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월정사 용광루에서 부처님진신사리와 팔각구층석탑 유물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보 제221호 문수동자상의 복장에서 나온 부처님진신사리와 국보 제48호로 지정된 팔각구층석탑에서 나온 은제도금여래입상과 다리니, 사리함 등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여러 유물을 전경할 수 있다.

신촌 봉원사에서는 오는 28일(은 5월 단오) 불교전통의식인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600년전의 길을 따라 팔만대장경 해인사 이은 6백주년을 기념하는 대법회가 4일 강화 선원사에서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선원사(주지 상원)와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필)가 마련한 대법회에서 참가자들이 이운의식을 통해 6백년전의 길을 따라 더러이 나투어까지 대장경판을 이운하고 있다. (김희=고영배 기자)

## 교계 첫 농민운동단체 '선농회' 9월 결성

### 유기농 직거래·도·농 공동체 전개

조계종 불교귀농학교(교장 도법)는 이달중에 불교계 최초의 농민운동단체인 (가칭) '선농회'와 '불교 생활협동조합' 설립 계획안을 마련한다. 불교귀농학교는 5~8월 2차 실상사 현장교과목과 15일경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교적 도농공동체 건설 기획안'을 확정한다.

이 기획안은 도시에 있는 사람과 신도를 가입시켜 유기농 직거래와 도·농공동체운동을 전개하고 불자 농업생산자들의 조직화를 꾀해 불교적인 농민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선농회'는 생산·소비자 조합을 연결하는 불교생활협동조합을 설립, 재정적인 기반을 다지면서 불교 농민운동의 틀을 다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우선 선우도당, 우리는선우, 수도권 사할 주지스님(당원직 이사)과 대(대)와 인도회·청년회의 참여(발기인)는 최소 2백여 명)를 적극 유도해 전국적인 차원의 불교생활협동조합을 전개, 유기농산품 불교적 도·농공동체의 한 전형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불교생활협동조합은 궁극적으로 '선농회'를 주축으로 기독교

### 교 농민단체인 '한살림회' (회원 1만명 이상)처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기농산물 직거래 매장을 설치하고, 농촌 지역에서의 불교적 영향력 제고도 추진하게 된다.

불교귀농학교는 출자금과 이익배당 문제 등 법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참여도 등을 감안하면 9월중에 불교생활협동조합과 선농회 창립법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사할 생활이 지역생활운동에 머문 한계를 극복하는 차별화 전략도 고민하고 있다.

그간 불교농민운동은 수십년의 전통을 지닌 자물쇠농민회나 기독교농민회, 정농회 등 대중 종교농민단체와는 달리 농민운동의 조직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불교귀농학교'의 시작은 불교내에서 농촌·농민문제와 관련한 최초의 운동'으로 규정되면서 불교농민단체의 출범을 예고해 왔다.

### "사전선거운동 자제" 조계종 중앙선관위

#### 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 현해)는 5월30일 사전선거운동 및 과열 혼탁선거의 자제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담화문을 통해 "종단 안팎에서는 4~5개월 후어나 있을 총무원장 선거와 중앙총회의원 선거에 임후보하려는 몇몇 후보들이 벌써부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총무원장선거법 제11조에는 총무원장의 선거기간은 후보등록일로부터 투표전날까지 10일간으로 명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종단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총보를 위반하고 대부분 중도들의 기대에 반하는 사전선거 운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불교문화 체험기행

6월의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월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63호)과 삼층석탑(보물 제233호)이 있는 도피안사, 지장도당 심원사, 6.25때 치열했던 격전지 '철원 노동당사'와 '명굴' 등을 찾아갑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며 통일일을 기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 6월 '6·25 격전지를 찾아'

- ▷도피안사, 심원사, 철원 노동당사, 명굴
- ▷출발: 6월 21일(일) 오전7시·조계사 앞
- ▷회비: 3만원·초등학생 2만5천원(도시락 지참)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해초여행사 (02)722-3900
-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 ▷지나 동안, 가족단위 참가 적극 환영합니다.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주관: 해초여행사

### 사찰 대상 사기 '극성' 23년

### 결식아동돕기운동 확산 19년

# 수도 권의 신(新)청학동에 도솔마을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전통의 산경표(山經表)에 따라 한남극불(한수이남, 금강이북) 정맥이 정통으로 흐르는 곳, 그 가운데 위치한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자연속의 삶을 주장하는 환경공동체, 개성이 독특한 재사·기인들이 자리를 틀고 모여 산다.

**도솔전원마을만의 Know-how**  
도시인들이 항상 그리워하던 동심의 고향 마을 - 도솔전원마을 이상적인 전원 주거지의 신 개념을 안성 도솔마을 전원주택이 실현했습니다.  
(주)도솔이 만드는 전원주택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하나의 예술작품입니다.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에 위치한 도솔마을 전원주택입니다. 저희 도솔마을에서는 IMF의 무거운 짐을 덜고져 조용하고 쾌적한 전원주택을 실신이 풍부한 불자 다수가에게만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선착순 분양하고자 합니다. \*물자공도인 환영합니다.

"산과 물이 모두 편안한 곳으로서 서로 어우러져 삽니다."

21세기의 가장 이상적인 주거지로 손꼽히는 곳 - 딱딱 드러나는 안성마을의 울림지 -  
"도솔전원마을"  
이곳에 쾌적하고 편리한 전원주택이 출몰됩니다!



**도솔의 건설철학**  
누가 집을 함부로 짓는가? 집구조에 관한 풍수지리학을 보면 양택(陽宅)의 법칙에 있어서 세가지의 요체삼(三要)이 있으니, 이것이 곧 대문과 방 그리고 부엌이다.  
대문은 식소림 출입하는 길이며, 방은 사람이 거거하는 바탕이며, 부엌, 이 세가지가 각각 제자리를 얻어 문(門)은 방을 탄생(生)시키고, 방(房)은 부엌을 탄생시키며, 부엌은 문을 탄생시켜서, 삼자가 서로 상극되지 않게 화(和)상(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집주인의 본성(本生) 즉 운명과 합치게 될때, 자손이 흥왕하고 복록이 번성되며 수명이 장건장(長健)하게 된다고 했다.  
백두대간 도솔산 밑의 풍수적인 최고의 길지(吉地)에서 이 모든 것을 저희 도솔마을 전원주택에서 이루어 보십시오.  
천년동안 전해 내려온 전통 양택의 비전! 집의 구조를 알면 건강과 성공이 보입니다  
ARCHITECTURE

최고의 교육환경을 자랑합니다!  
대학4개(두원 공업전문대, 동이방송 전문대, 안성 산업대, 중앙대)를 비롯 고등학교 7개, 중학교 3개, 초등학교 34개로 최고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양 사무실 TEL : (02)2811-515~6 FAX : (02)2811-517  
주요주택 (株)兜率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430-432번지